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주요 강단 - 마태복음

애통하는 자의 복

(마 5:1-4)

The Blessing of those who Morn

(Matt. 5:1-4)

우리는 우는 자보다 웃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이란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며 가장 통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는데 그것이 바로 펜테오입니다(창37:34).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 해야 하나?



박노철 목사

We want to be a person who smiles more than cries. However, Jesus tells us that those who morn are blessed. The word, ‘lamentation’ in Greek ‘pentheo’ means the greatest lamentation. When Jacob heard that Joseph had died, Jacob tore his clothes, put on sackcloth and moured for his son for many days (Gen. 37:34), which is the same meaning found in ‘pentheo’ here in this text.
If so, for what do we have to morn?

1. 죄악 된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 애통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외쳤던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울었던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옵음입니다.”라고 외쳤던 애통입니다.

애통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많은 것으로 포장하며 사는 사람, 자신의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애통할 수 없습니다.

2.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주리고 목말라 고통 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한 가지 영적인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으로 애통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애통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3.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눅 19:41-42).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잃어버린 바 된 유대인들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이며, 영원한 위로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서의 위로입니다.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We must accept and mourn over the reality of sin as it is.

The apostle Paul who cried out this ‘lamentation’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It is the lamentation in which Jeremiah held the word of God and lamented,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Who can understand it? I the Lord search the heart and examine the mind, to reward a man according to his conduct, according to what his deeds deserve.”

Isaiah also cried out in great lamentation, “Woe to me. I am ruined, for I am of unclean lips,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and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Almighty.”

The lamentation begins from one’s own self-reflection. Whoever does not know who one is, whoever is busy and lost in many things, and whoever does not see one’s own spiritual reality, cannot lament oneself.

2. We should lament for a weak neighbor

Jesus wept in the face of Lazarus’ death. He also saw a crowd of his followers who didn’t eat anything in the bare fields and who underwent sufferings through their starvation and thirst for a long time, and was deeply moved and troubled. Thereafter, arose the miracle of astonishment with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On further studying the Bible, we can find one important spiritual principle. When we look upon our neighbor undergoing suffering, and we cannot help lamenting, immediately sympathizing with their sufferings and praying to God, there will be God’s help and a miracle will present itself.

However, Christians should simply not lament with human compassion. We must lament with “the emotion of the Holy Spirit in which God Himself entreats with a sigh of grief beyond expression” which is really to enter into Christ’s love.

3. We must lament for the lost spirits

Jesus wept for those who didn’t accept the Gospel and remained lost (Luke 19:41-42). The apostle Paul experienced unceasing suffering and tears, owing to the Jewish people who were lost.

When we weep with a lamenting heart for the lost, it is the greatest, the most beautiful, and the holiest of blessings that Christians can enjoy.

My beloved Christians!

The blessings of those who morn, is God’s comfort. This is an etemal comfort, and the comfort of the most beautiful blessings that we can enjoy in the world. Are you lamenting? If so, all of you are happy. By lamenting, I earnestly pray that you will be a precious people receiving God’s comfort in full.

은혜롭게 진행되는 2011 사명자대회

10월14일(금) 오후7시 현재 298명 참여, 성경 2독 통독 중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사명자 대회"를 주제로 2011 사명자 대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현재 50일동안 24시간 계속되는 연속기도회에는 성도들이 본인의 시간에 맞춰 책임있게 참여하여 기도의 길이 이어지고 있고, 릴레이 성경읽기는 현재 298명이 참여하여 성경2독을 통독 중에 있다. 지난주 주보 간지로 배부된 "태신자 카드"에 태신자를 작성하여 헌금함이나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바란다.

2011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 10월 16일(주일) / 본선 : 10월 21일(금) 오후 7시

매년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교회학교별로 열린다. 오늘 예선은 각 부서별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본선은 10월 21일(금) 오후 7시 602, 603, 609호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암송대회는 3개조로 나누어서 본선 진행을 하며, 대상 3명,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3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발표는 10월 23일(주) 순례자에 하며 당일 오후 찬양예배 시 시상과 암송도 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변질된 예배, 강단 세속화, 분열 극복해야 / 한국교회는 말기암 선고상태

- 이종운 목사, 서울노회 연속포럼서 강연 -

다음은 10월 8일자 한국장로신문에 실린 기사로 9월 29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서울노회 주최 '신앙의 순수성 회복과 교회 개혁을 위한 연속포럼'에서 이종운 원로목사님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실린 기사의 전문이다. (편집자 주)

"경건함 대신 인간을 즐겁게 하는 놀이 문화로 변질된 예배, 교권주의, 공명주의, 분파주의, 강단세속화, 교회 기업화, 윤리적 타락상과 이단사이비의 침투로 한국교회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경고장인 말기암 선고를 받아 놓은 상태다."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이종운 목사(서울교회 원로)는 9월 29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서울노회 주최 '신앙의 순수성 회복과 교회 개혁을 위한 연속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대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주의에 빠져 기독교의 본질에 집착해 있다"면서 "사대교회가 받았던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종운 원장은 "심지어 교회에까지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야만인들의 아이디어가 득실거리고 있다면서 구도자 예배(Seekers Worship)라는 미명 하에 열린 예배가 미국으로부터 직수입되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려야 할 예배가 노래방 수준보다도 못한 예배로 변질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은퇴 후 여러 교회에서 어이없는 설교를 수차례 들었는데 심지어 강단에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공부도 없이 거짓말을 늘어놓는 설교자들이 적지 않는 등 강단의 세속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장로교회가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개교회주의를 지양하고 교회안에서 천국을 이뤄가며, 연합하되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 및 타종교와 로마가톨릭과의 연합, 그리고 문화적 마찰이나 종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타협이나 야합은 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종운 원장은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화하는 한국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하며 배금주의와 이로 인한 금권선거를 목숨 걸고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개인적 유익과 단순한 실용주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정직함, 겸손함 등을 나열하고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고 진리만을 선포하며 지도자를 바로 세워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며 주님이 교사되고 목사는 반장되고 장로는 부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11년 추계 전국장애인조정대회 금메달 획득

지난 2011년 10월 1일(토) 2011년 추계 전국장애인조정대회가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있었다. 이날 남자 1000M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에 호산나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서민규 학생이 참가하여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영광을 이뤄냈다. 서민규 학생은 남자 1000M에서 우승과 함께 한국 신기록 (3분 13초 50) 이

라는 생각지도 못한 기록과 또한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뤄내었다.

최근 방송으로 인해 실내조정에 대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서민규 학생의 우승, 한국 신기록 및 경기도 대표 선발은 호산나학교 뿐만 아니라 법인 서울교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4]

(문 21)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시킨 비겁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답) : 창12:10-20과 20:1-18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각각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갔다가 범한 죄였습니다. 부패한 이방나라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미모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함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내로 하여금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므로 우상의 도시 애굽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65세가 넘었으나 미모가 빼어나서 아브라함이 예견한 대로 바로에게 끌려갔고 그 보상으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창12:16, 13:2)

그러나 이 일이 있자마자 바로는 갑자기 병들었고 결국 애굽인의 종교에서도 금하고 있는 간음을 한 것이 나타났을 때 더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한 바로는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고 아내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게브로 갔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 결여를 정직하게 보여 준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그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피할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속이고 애굽의 바로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 과오를 깨닫고 이 이방인 방문객을 향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나안 땅에 돌아 올 때도 가지고 왔습니다. 고로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보다 바로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창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으나(12) 그녀를 아내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한 이로부터 죽임을 받을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11)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한 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은 천 개와 땅을 주었습니다.

바로 경우는 사라의 몸값으로 선물을 받았으나 아비멜렉으로부터는 사과와 변상의 뜻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산은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바로와 아비멜렉에게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오히려 우리를 욕되게 할 뿐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창대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었습니다.

(다음주 계속)

나의 하나님

사명자의 기도

서울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

‘베델하우스’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른도 맘껏 뿔 수 있는 푸른 잔디밭이 눈에 확 들어온다. “아 곱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듯이, 이곳 ‘베델하우스’를 찾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집을 ‘베델하우스’라 이름 지었다는 오정수 장로, 베델하우스에는 일 년에 2천 명 가량의 손님이 찾아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잠깐이다, 언제 나를 불러 가실지 모르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하자’고 생각하며 교회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나에게 큰 복을 주세요.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주시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주실 것을 기대 하고 일하지는 않았어요.”

서울교회 건축 당시 오 장로는 사실상 사업은 포기했었다.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던 그는 오히려 사업장에는 나가지 않고 공사 시작 날부터 완공 때까지 건축공사현장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다.

“교회가 나날이 성장해 예배당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재정은 없었고 IMF 금융위기까지 겹쳐 건축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들 어렵다고 할 때,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목사님께서 물질을 아닌 비전으로 교회를 짓자고 하셨죠.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건축이 이뤄졌고 현당을 하고, 더욱이 사업도 번창한 겁니다.”

오 장로가 운영하던 영광전자는 타 대리점 200~300곳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렸다. 사회적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고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매실적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업계에서 선두주자로, 신뢰할 만한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오 장로는 그의 철저한 신앙의 근원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받은 교육에서 온 것이라 했다. 1946년 평안남도 평원군, 부유한 가정에서 2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6·25전쟁 발발로 온 가족과 함께 피난 내려오게 됐고, 1951년 크리스마스 때 누나를 따라 생애 처음 교회를 찾게 됐다. 이후 지금까지 60여 년이 지나는데 단 한 번도 주일을 거른 적이 없다.

“어릴 적에는 고신 교단 교회에서 엄격하게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교육시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주일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까

지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때부터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 장로는 소문난 애처가이다. 평소에도 ‘사랑한다’ ‘예쁘다’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 등의 애정표현을 기회가 있는대로 한다고 하니 흔치 않은 모습이다.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벽에는 신혼 시절 오 장로가 이영희 권사를 등에 업고 돌 징검다리를 건너는 흑백사진이 걸려 있다. 서로를 바라보는 애정어린 눈빛은 사진 속 수십 년 전 그때와 지금과 변함이 없다.

이 권사는 오 장로를 가리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다”며 “남들은 모르는 저만 아는 모습마저도 존경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싶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오 장로가 아내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선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교회이다. 사람들은 그의 번창하는 사업을 가리켜 ‘복 받았다’고들 하지만 그는 “서울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복”이라고 했다. 한때 교단을 이적하는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교회와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그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많은 교회 중 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며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신학 세미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행사가 되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죠. 유익하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고 김치신학 세미나에는 그동안 150여 국가가 거쳐갔어요. 구제사역의 일환으로 설립된 아가페타운에는 정신발달장애자들을 위한 호산나 학교가 세워졌어요. 곧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 중입니다.”

오 장로는 앞으로 서울교회가 더욱 견고히 뿌리내려 다른 많은 교회들을 돕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퇴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했다. 훗날 계시록의 일곱 교회와 같이 서울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도 덧붙였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을 소망하며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신학 세미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행사가 되었다.

“**서울교회가 더욱 견고히 뿌리내려 다른 많은 교회들을 돕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 글은 2010년 11월 13일자 한국장로신문에 실린 오정수 장로의 인터뷰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오정수 장로님은 전국장로연합회수석부회장 후보로 오는 11월 17일 선거가 있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바란다.

(편집자 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가지신 계획 속에 아브라함, 모세, 바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부르셨듯이 작은 저를 기억하시고 부르심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사명도 함께 주셨으니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소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덧입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가슴에 채워 그 회복의 역사를 온 누리에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서울교회가 되어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고백을 통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사명자 되게 하소서.

이복규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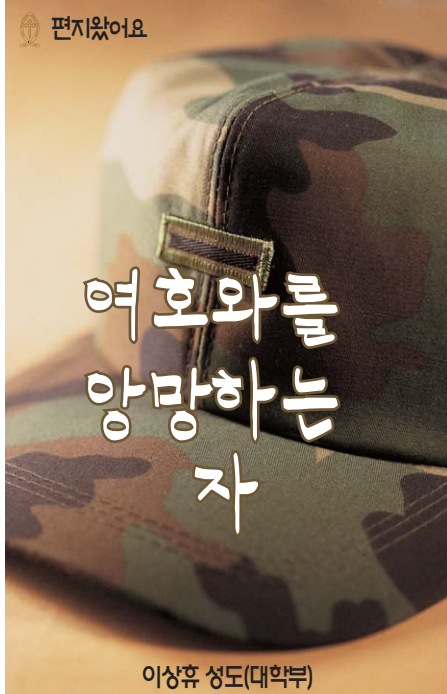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1년 6월 21일에 군에 입대한 이병 이상휴입니다.

처음 부모님의 손에 이끌리어 갓난아이 때부터 서울교회를 섬겨 입대를 앞둔 날까지 고등부에서 봉사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던 저의 신앙생활을 입대하고 난 후에 좀 더 뒤돌아서서 바라볼 수 있었고 저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대 직전 흥해작전에 참석하면서 새롭게 그 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박노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조금 더 저의 신앙심이 큰 것 같습니다.

고등부에서 봉사를 하는 기간 가운데에서도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교제를 통해 신앙심이 커진 것 같고 그러하기에 군에 와서도 서울교회와 고등부가 그리우며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듭니다. 입대 이후에는 저의 신앙심을 테스트도 해보고 바쁜 훈련과 일상 가운데 게을러질 것만 같았던 저의 신앙심이 흥해작전, 그리고 고등부 봉사로 인해 담대해진 것 같아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이등병이기에 어려움도 많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생각되지 않지만 이사가 40:31과 하박국 3:17-19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굳은 마음으로 병영생활에 임합니다. 이사가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3:17-19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항상 언제나 저의 곁에 부모님, 서울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감사히 기쁘게 군 생활하겠습니다. 신앙심이 하늘 끝까지 뻗고 모든 훈련과 군 생활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 찬양대(부장 : 하인선 장로)의 찬양으로 드린다. "Kyrie[주여 불쌍히 여기소서](J.Leavitt곡)", "그가(우효원곡)", "왕이 오시네(C. Kirkland곡)" 세곡을 유태왕 집사의 지휘와 차주연 성도의 오르간, 조현정 성도의 피아노반주, 윤주일 성도의 팀파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지휘자 유태왕 집사는 이태리 유학후 귀국하여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활발한 합창지휘자 활동으로 국내외의 여러 합창 콩쿨에서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알콜 중독 상담안내

유율상 집사는 전국의 보건소와 병원과 연결되어 알콜 중독자 가족 상담을 하고 있다. 가족 중에 알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010-2201-2662(유율상 집사)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6일(수)부터 19일(수)까지 새생명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다. 17일(월)장로교정체성회복위원회, 19일(수) 한국로잔위원회, 20일(목)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임원회, 21일(금)한국기독교학술원이사회에 참여한다. 21일(금)종교개혁정신에 입각한 목회자윤리실천강령을 선언한다.

■ 득녀: 10월13일(목) 윤요섭 집사 안재희 집사(윤봉준 장로 김명화 권사 장남 가정)

■ 주간식당 봉사: 안드레교회(10.16) 베드로선교회(10.23)

■ 금주의 식사: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여호수아회 특별 강연회

강남 OCU(여호수아회 회장 서울교회 유관모 집사)는 강영우 박사(UN 장애인 위원회 부의장)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회를 갖는다. 강남 OCU는 이종윤 원로 목사가 인도하는 기독교인회 모임으로 매주 목요일 소망교회에서 있다. 이번 강영우 박사 특별 초청 강연회는 10월 20일 오전 6시 40분 소망교회 제2교육관에서 열린다.

지원교회 교역자 초청 간담회

전도위원회(위원장 하영수 장로)에서는 박노철 목사 위임을 앞두고 서울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교회 교역자를 초청하여 저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상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7일, 오후 12시에 802호에서 있게 된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1 사명자 대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 2011 전교인 임송대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 우리 교회 주변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하시는 성도님들께 아름다운 안식처를 허락해 주셔서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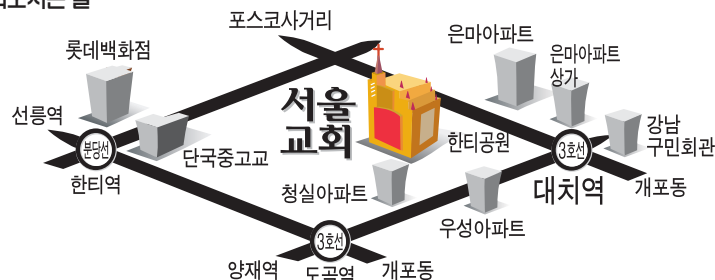
은 교회의 후원과 기도 가운데 지난 11일(화), 어르신들인 아브라함선교회(회장: 이재운 집사)와 장년5부(부장: 최광성 집사)가 아가렛타운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외예배 설교 중인 박노철 목사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